

◇ 논 단 ◇

의과대학 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 유 복

우리 나라 의학교육에 대하여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물론, 의학협회, 의학회, 의학교육학회, 의과대학장협의회, 문교부, 보사부 그리고 일반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여러 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의학교육학회의 발족과 그 활동으로 우리 나라 의학교육을 여러 측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의학교육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기대가 크다.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 각 계층에서 높은 것은 안심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관리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교수들도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으며, 그 결과를 의학교육 개선 재료로 활용하기 또한 쉽지 않다.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대체로 교육기관의 구조적 및 교육과정의 평가(structure and process assessments)와, 교육하여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취도 평가(outcome assessment)로 나누어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이상적인 방법은 교육산물인 졸업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이를 측정하기는 그다지 쉽지가 않고 장기간의 측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반영시키는 데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졸업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복잡하고, 면허시험 합격률, 수련의(인턴 및 레지던트) 합격률, 수련후 취직률, 학술 활동률, 승진 및 특수 전문화율, 의료사고 빈도, 진료의 질(생존율

및 건강개선도) 및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가(기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또 측정된 결과가 반드시 재학시절의 학업평가와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학 성적의 우열과 졸업후 행하는 진료의 질 간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료의 질은 지식과 기술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및 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자격시험(국가고시) 합격률에 상당한 비중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면허시험을 혹평하는 사람은 실기 기술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으며, 문제 내용을 이해 못하면서도 맞출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물론 시험문제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단순한 지식의 수준외에 실기 능력이나 가치관,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의과대학 재학생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련의 취직률, 승진, 근무기관의 평가 기록 등도 공정하게 평가된다면 출신교의 교육평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일찌기 Flexner는 이러한 졸업생들의 졸업후 평가의 어려움과 면허시험이 교육평가 방법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재학생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엄격한 기준설정과 교육하는 과정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160개교에 달하는 미국내 의학교육기관을 대폭 정리하였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 특히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면허시험제도의 강화보다는 교육기관의 수준 향상 및 평준화를 강조하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학을 졸업하면 면허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교육의 산물인 졸업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보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성취도 측정중 가장 비근한 방법이 의사자격시험이면서도 이 제도가 교육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졸업후 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기관의 구조적 평가도 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분야에서 의학교육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여러모로 앞서 있고 나은 것으로 자부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 사이에 의학교육기관의 난립과 학생 수의 급증으로 급격한 양적 팽창에 반비례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의학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구조적 개선이다. 교과과정이나 교육방법 개선을 위하여는 그간 각 기관별로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하여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의학교육연수원, 의학회, 의학교육학회 등의 노력으로 기초나 임상교육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과목별 교육목표 제정작업을 하여 전국적으로 의학교육을 표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기관의 구조적 표준화 작업은 거론은 되었지만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구조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타탄 할 것이 아니라 자극을 하고 제동도 걸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독려 함으로써 의학교육기관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교육기관의 구조적 평가를 위하여는 입학자격, 교육과정 내용, 교육시설(기초실습, 임상실습), 교육방법, 교수진(질, 수), 교육목표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며, 현지답사를 통하여 직접 점검과

면담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실제로 의학교육기관의 질이 표준화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의사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시키려면 의학교육기관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대학설립 기준령이 있기는 하나 대개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더구나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령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의학교육학회가 의학교육향상을 앞으로의 접근과 노력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싶다.

일차적으로는 실시하기 쉬운 절차로서 우리 나라 현시점에서 의학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과대학장협의회, 의학회, 의학협회 등과 공동으로 현지답사를 하여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수진, 교육가능학생 수 및 기타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의학교육기관 인준(accreditation)기구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의학교육기관의 질과 수준을 표준화한다면 이러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일정 수준의 지식, 기술, 가치관 및 태도를 어느정도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둘째 단계로서는 졸업생들의 졸업후 성취도를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재학생 교육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평가 항목과 평가 실시 방안을 연구하여 그 방법을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게하거나, 의학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의학교육학회 자체에서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았으면 한다.